

“남자는 여자 ‘눈물 냄새’만 맡아도 공격성·성욕 줄어든다”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 남자의 마음이 약해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속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의 눈물이 남성의 공격성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의 사니 아그론(Shani Agron) 박사후 연구원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최근 과학 저널 ‘플로스생물학(PLOS Biology)’을 통해 발표했다.

앞서 설치류 실험을 통해 암컷의 눈물 냄새가 수컷의 공격성을 차단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는 동물에게는 일반적이지만, 인간에게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인간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건강한 성인 남성 참가자 51명에게 컴퓨터 게임을 시켰다. 게임을 하는 동안 상대방이 속임수를 쓴다고 믿게 만들어 공격적인 행동을 유도했다. 동시에 6명의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여성의 눈물 또는 식염수 냄새에 노출되도록 했다.

실험에 참여한 여성들은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눈물과 식염수 모두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냄새에 노출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남성들은 게임을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복수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성들이 여성의 눈물 냄새를 맡은 후 게임 중 복수를 노리는 공격적인 행동이 40% 이상 감소했다.



연구팀이 자기공명영상(MRI) 스캐너로 반복 촬영한 결과, 공격성과 관련된 두 가지 뇌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과 전섬피질은 전측 뇌섬엽은 남성이 여성의 눈물 냄새를 맡았을 때는 그다지 활발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뇌 활동의 차이가 클수록 플레이어가 게임 중 복수를 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눈물, 뇌 활동, 공격적 행동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발견한 것은 사회적 화학 신호가 단순히 동물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물에도 남성의 공격성을 차단하는 화학적 신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눈물이 감정과 연관된다는 개념이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화학 신호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인간 눈물 속의 물질이 공격에 취약한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일 수도 있다.” 라고 추측했다.

한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는 지난 2017년 여성의 눈물이 남성의 성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남성 참가자들이 소금물 냄새를 맡았을 때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의 눈물 냄새를 맡은 뒤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3% 감소했다. 또한 눈물 냄새를 맡은 남성들은 체온, 심박수, 호흡 등 건강이 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

■ 알고계셨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기억력 손상?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학습 및 기억 신경 생물학센터’ 연구진은 쥐를 물이 채워진 미로에서 헤엄쳐 빠져나오는 훈련을 시킨 후, 실험 30분 전 물에 약한 전기 충격을 가했다. 그러자 쥐는 미로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실험 2분 전과 4시간 전 똑같은 충격을 줬을 때 쥐는 아무 어려움 없이 길을 찾아냈다.

연구진은 이 실험으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물질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뇌에서 급격히 양이 늘어나 기억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은 지 30분 후 최고로 많이 분비되는 물질이다.

또 이 호르몬을 정상 위에 주입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은 쥐와 유사하게 길을 헤매는 현상이 관찰됐다. 이로써 스트레스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쥐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이 실험 결과로 평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몽땅 잊어버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만일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라면 ‘덜 더하기 들은 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홈 파티 케이터링 환영



★ ★ ★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